

목포, 사회적경제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올해 활동 성과 공유 · 발전방향 논의

목포시가 지난 10일,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목포시지부 주관으로 목포미식문화센터 해관1897에서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목포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함께 모여 올해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우석대 ESG국가정책연구소 부소장이자 교양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지용승 교수가 사회적경제와 ESG(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의 합성어)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성과 발표는 사단법인 상생나무의 ‘사회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목포시협동조합회의의 ‘공감마켓’ 운영 등 5개 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마을공동체로 활발하게 활동한 부흥동 마을공동체에서 마을공동체 ‘부흥으로 오라’ 운영에 대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목포=김근호 기자

진도,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성황’

4개 단체 공동 주최... 회원 등 700여명 참석 소통·화합

진도군이 최근 제10회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한국생활개선진도군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진도군연합회, 한국4-H진도군연합회 등 4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회원 약 700여명이 참석한 소통과 화합을 도모했다.

행사는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4개 단체의 1년간의 성과영상 시청, 유공자 시상, 축하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실천 다짐을 위한 결의문 낭독, 4개 단체 인재육성장학금 200만원 기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농촌지도사업 성과 전시와 단체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노래자랑, 체육행사도 준비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었다.

‘땅에서 희망을’ 농업에서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농업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잘사는 농촌, 활기찬 농업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영암 ‘금정면민 날·대봉감 축제’ 성료

대봉가요제·품평회 등 다채...면민·관광객 어울려

영암군은 ‘행복다감 금정대봉감, 맞나다’란 주제로 열린 ‘제18회 금정면민의 날 및 금정 대봉감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행사는 대봉감을 영암 최초로 가꾼 금정면 안노리 모정마을에서 대봉감 풍작을 기원하는 고유제 봉행으로 시작됐다.

또 출향인의 밤, 대봉가요제, 대봉감 품평회 등으로 면민과 출향인, 관광객이 어울렸다.

고향사랑기부도 이어졌다. 송명광 ㈜SMK 대표가 500만 원을, 채규진 전 재경금정면향우회장이 300만 원을, 김영오 재경금



정면향우회장이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대현 ㈜대덕건설 대표는 지역인재를 위해 써달라며 미래교육재단에 200만 원을 전달했다.

대봉감 품평회에서는 4명의 심사위원이 무게, 색깔, 당도 등 6개 항목을 심사해 아천리 민병우 씨에게 대봉상을 수여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강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탄력’

국·도비 12억 6000만 원 확보... 내년 21억 투입 추진

강진읍시장·병영시장 2곳... 시설 개보수·주차환경개선

강진군은 전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전통시장 관련 공모사업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강진읍시장 시설 개·보수사업과 병영시장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선정됐으며, 군은 이 2건의 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국·도비 12억 6000만 원과 군비 8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강진읍시장 시설 개·보수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화장실, 휴게공간, 소화시설 등 시설 개선과 쾌적한 공간조성

으로 이용객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쪼들본 코리아대표 백종원과 함께하는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 실현의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진읍시장과 오감통 먹거리장터부터 시작해 시장주변 상가로 확대하고 이후 강진을 상권 전체를 활성화하는 3단계로 진행되는 지역살리기 프로젝트는 강진을 시장을 시작으로 다른 관광지까지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늘어난 관광객만큼 일자리도 늘어나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병영시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원으로 병영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며 강진 불금불과 행사와 연계해 쇄퇴하는 지역소생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처음 선보인 ‘강진 불금불과 행사’는 병영의 오랜 전통 먹거리인 병영폐지불고기와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결한 새로운 관광모델로 지난 5월 26일 개장 이후, 13,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통해 인구

늘리기와 동일한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앞으로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생태관광 도시 병영을 만들고 나아가 병영자전거 여행, 이야기 해설사 양성, 농부장터, 할머니 장터, 청년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로 연결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상권 변화와 소비 패턴의 변화에 맞춰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한편, 강진군 전체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본코리아 대표 백종원과 함께 추진하는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전국의 관광객들을 강진에 오게 해, 지역소멸의 위기 극복 및 상권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한홍수 기자

완도, 책 읽는 지자체·윤선도 작은 도서관 ‘대상’ 동시 수상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 개최·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높이 평가

완도군이 지난 9일 열린 ‘제8회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에서 ‘책 읽는 지자체’ 부문 대상과 보길도의 윤선도 작은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 부문에서 대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사)국립독서문화진흥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후원하는 ‘제8회 2023년 책 읽는 대한민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한 지자체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군은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 개최와 더불어 도서 지역의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독서 동아리 활동과 희망 도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독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독서 인구 저변 확대에 힘썼다.

특히 작은 도서관 부문 수상은 처음으로 도서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책을 자유롭게 만나 즐길 수 있는 친화적 문화 공간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완도=이두식 기자

신안 새공예박물관 소장·전시 공예품 도록 제작

2012년부터 미국·독일 등 27개국서 1100여 점 수집

신안군은 국제적인 철새 중간 기착지인 흑산도에 조성된 새공예박물관에서 소장·전시하고 있는 공예품 도록을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록에는 소장하고 있는 공예품을 나무, 금속, 광물, 도자기, 유리 등 재질별로 분류해 소개했다.

또한 국내에서 활동하며 새공예품을 제작하는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장도 수록했다.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위치한 흑산도는 철새들의 주요 이동 길목으로 봄, 가을철 다양한 철새들이 관찰되며 이동 중 지친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휴게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국내에 기록된 560여 종 중 국내 최대인 400여 종이 흑산도 권역에서 관찰될 정도로 철새들의 주요 거점이다.

신안군은 국가 간 이동하는 철새와 서식지를 보전하고 새(조류)와 관련

된 다양한 볼거리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 새공예박물관을 개관했다.

새공예박물관에서 소장한 새와 관련된 다양한 공예품은 지난 2012년부터 신안군 직원들이 직접 수집해 마련한 것이다.

이들은 공무상 출장과 가족여행, 신혼여행 등 개인적인 일정 중에 여행지에서 새공예품을 한 점 한 점 사기 시작해 현재 27개국 1100여 점을 소장·전시하고 있다.

/신안=강축복 기자

해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오는 27일까지 일제단속

해남군은 오는 27일까지 해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 유형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환전(속증 강)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상품권 수취 행위 ▶가맹점에서 상품권 결제 거절 또는 불리하게 대우(부가세 10% 웃돈 요구)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자료와 주민신고를 통해 사전 조사한 후 의심되는 정황이 파악되면 해당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수입액 환수 등의 조치와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남사랑상품권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완도군 전복 홍보대사 영탁